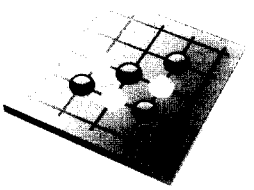


바 둑 한 담

이 상 흡 / 深山弄月(shl2372@daum.net)

조선 후기 외래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바둑도 변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바둑이 양반층의 전유물에서 서민층으로 확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국수산맥은 김만수(金萬秀), 백남규(白南圭), 윤경문(尹敬文), 노사초(盧史楚)로 이어지다가 일본에 바둑 유학을 가서 일본기원프로 초단의 면장을 가지고 귀국한 조남철(趙南哲)이 해방 직후 한국기원의 모태가 된 한성기원(漢城棋院)을 설립하여 현 한국바둑의 터전을 마련한 이후 역시 일본에 바둑유학을 다녀온 김인(金寅), 조훈현(曹勳鉉)과 그 뒤를 이은 불세출의 천재 이창호(李昌浩)에 의하여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사초 국수 시절까지는 우리 고유의 순장바둑이 두어졌는데 순장바둑은 현대바둑과 포석 및 계가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순장바둑은 바둑판에 미리 16개의 흑백의 돌을 깔고 흑이 천원(天元)에 첫점을 놓고 시작, 바로 중반전에 진입하여 전투를 시작한다. 현재 전투적이고 실전적인 한국바둑의 근원은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선후기 일본 문물이 도입되면서 함께 들어온 일본식 바둑이 급격히 확산, 순장바둑과 혼재양상을 보인 것이 이 시기이다.

이후 한일합방 이후 일제시대말기 조선바둑의 일인자로 군림하게 된 사람이 바로 노사초(盧史楚)국수이었다.

盧국수의 본명은 석영(碩泳)이며, 史楚는 호, 그는 1875년 경상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의 부자집안에서 태어나 망국의 설움을 바둑으로서 달래며 한시대를 풍미하다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5월 고향에서 별세했다.

史楚의 바둑은 호방한 전투형이었고 특히 패싸움을 즐겨해서 별명이 盧패, 또는 盧上패 였다.

盧上패란 盧국수가 패싸움에서 상수라는 의미이며 노상 패싸움을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어려서는 漢學을 공부하고, 30세가 넘어 본격적으로 바둑공부를 한 그는 요즈음과 같이 어려서부터 바둑에 정진 했더라면 조훈현, 이창호에 못지 않은 굉장한 고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땅에 수많은 바둑고수들이 명멸하고 수많은 일화를 남겼지만 史楚만큼 바둑으로 한시대를 풍미하고 많은 일화를 남긴이도 없을 것이다.

1944년 일본의 기타니(木谷實) 8단과 여류기사 本田壽子 初段이 조선에 왔을때 盧국수는 本田壽子 初段에게 白을 들고 만방으로 이겼다. 그리고 木谷 8단과의 대국에서는 속기파 盧국수가 착각을 하여 축을 뻗어나가자 木谷이 친절하게 알

려주었다.

그러자 史楚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축이면 몰아 잡으면 될 것 아닌가 라고 말하였다.

어느해 史楚의 큰 손자가 태어났다. 史楚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보약을 지으려고 읍내 한약방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바둑친구를 만났다. 그러자 그는 보약을 손에 든채 친구를 따라서 漢陽으로 바둑유랑을 떠나버렸다.

그시절에는 지금처럼 프로기사 제도도 없었고 공식적인 바둑시합도 없어 당시 기사들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내기바둑을 많이 두었다. 史楚도 역시 내기바둑을 두었고 오히려 그 내기바둑을 매우 즐겨했다.

집문서, 논문서를 걸고 두기도했으나 그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내기를 해서 돈을 따면 가난한 棋友들과 나누어 썼다. 게다가 내기에서 지는 경우도 허다하여 고향의 집이 여러번 가차압에 걸렸다 풀렸다 하는 바람에 등기가 무려 27번이나 바뀌곤 하였다.

史楚가 한번은 전라도 光州에 가서 내기 바둑을 두는데 만방으로 이긴 바둑을 "天無盡殺之理(하늘의 이치가 다 죽이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 대마를 살려주고 나서 도리어 한방을 져버린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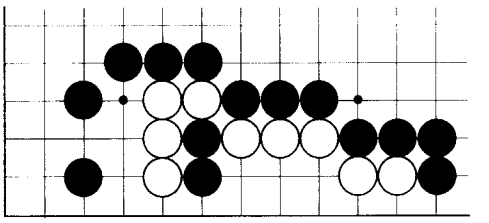
또 그가 어느날 棋客 한사람과 내기바둑을 두다가 그 기객이 돈을 잃고나서 개평을 달라고 졸라대자 史楚는 "이사람아, 그렇게 돈이 궁하면 왜 내기 바둑을 두는가" 하고는 땃던돈을 모두 되돌려 주기도 하였다.

"사초 어른께서는 별세 후에 바둑을 두고 싶어 어쩌시렵니까?" 라고 후배인 柳鎭河 국수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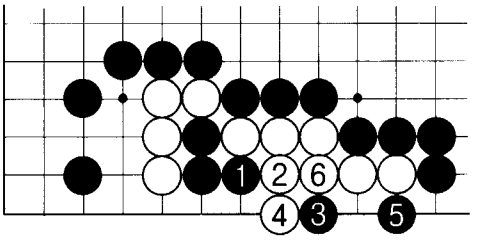
그러자 史楚는 "먼 훗날 사람들이 나를 묻거든 固一世之善棋터니 而今安在哉야(진실로 한 시대의 잘두는 바둑이더니 지금은 어디갔느냐)라고 말해주게나"라며 껄걸 웃었다고 한다.

사활문제 : 黑先으로 白을 잡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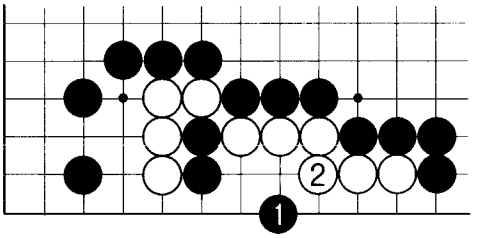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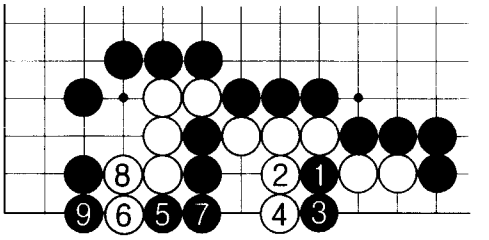
문제도



1도 (실패) 흑1,백2를 결정해 버리는 것은 대악수. 백6까지 쉽게 산다.



2도 (역시 실패) 흑1로 날일자 하는수역시 백2로 실패



정해도(흑선 백사) 흑1로 끊는 것이 호착, 흑3, 백4때 흑5가 결정타.